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방향



金成豪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국가차원의 국민노후 소득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1988년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자영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11년만에 전국민연금을 실현하였다. 짧은 기간 내에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연금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과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자금운용과 연금재정에 대한 불안으로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장기간 연금급여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관련 제도 변화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

쳐 나타나며, 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회환경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제반 사회여건이 변화하여 또 다시 개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간의 양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당면과제를 그동안 축적된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사회여건에 적합하게 개선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재정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8년 말 국민연금법 개

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한 바 있으며,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전반의 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년 3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개선을 포함한 다각적인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며, 자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과약 사업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도 꾸준히 병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동안 쌓여왔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노후보장제도의 주축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생활의 안정적인 담보장치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소중히 가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말씀히 씻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노후보장제도의 주축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생활의 안정적인 담보장치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소중히 가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뢰와 노력이 곧 국민연금이 영구적으로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백지**